

1월 은행 가계대출 1000억 늘어

금리 상승·주택거래 둔화 등 영향 2014년 1월 이후 최소폭 증가... 기업대출은 9조원 늘어

1월 은행 가계대출이 금리 상승과 비수기 주택 거래 둔화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708조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2014년 1월 2조2000억원 감소한 이후 가장 작았다.

1월 기준으로 보면 2010~2014년 평균 증가 규모(-1조7000억원)보다는 크지만, 2015~2016년 평균(1조7000억원)보다는 작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비수기를 맞아 주택거래가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533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4년 3월(8000억원) 이후 2년10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주택담보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6조1000억원, 12월 3조6000억원, 올해 1월 8000억원 등으로 점차 축소 추세다.

주택담보 제외인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173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2000억원 줄어든 데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주택거래 둔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 규모가



헬스케어존 오픈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지랜드 프라이스퀵 용산점에서 전지랜드와 렉스파가 공동 주최해 열린 '헬스케어존' 오픈 기념 행사에서 배우 한채아(오른쪽 두번째)가 실내 운동기구를 체험하고 있다.

축소됐다"며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은 기업의 상여금 지급 등으로 상한이 늘면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연초 계절적 요인으로 오히려 늘었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75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15조원 감소한 뒤 연초 계절적 요인으로 한달 만에 반등했다.

대기업 대출은 159조4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594조4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은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대출 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은행의 수신 잔액은 1451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조1000억원이나 줄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등 기업의 자금 인출 등으로 20조

원 감소했고, 정기예금(-1조2000억원), 은행채(-2000억원) 등도 줄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은행들의 발행 확대로 1조5000억원 늘었다.

자산운용사 수수는 481조6000억원으로 오히려 12조3000억원 늘었다.

머니마켓펀드는 국고여유자금과 일부 금융기관의 단기여유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11조원 증가했고, 신종 펀드와 채권형 펀드도 각각 2조7000억원과 7000억원씩 늘었다. /뉴시스

은행 작년 '깜짝 실적' ... 주택대출 증가로

저금리에도 이자이익 늘고 부실대출 대폭 줄인 결과... 신한은행 순이익 30.2% 급증

은행권이 대출 자산에 힘입어 지난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거뒀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자이익은 늘고 부실대출은 대폭 줄인 결과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최근 4~5년 사이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전년보다 30.2% 급증한 1조940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자이익은 4조504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1% 증가했다. 원화 대출금이 184조원으로 1년 전보다 4% 증

가하며 이자이익 증가에 기여했다. 가계대출은 6.3% 불어난 93조6280억원, 기업대출은 2.5% 증가한 90조9310억원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1.49%로 전년 대비 0.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말 기준금리 인하로 하반기 마진 하락이 예상됐으나 수익성에 기반한 대출자산 운용과 조달비용 절감 노력으로 순이자 마진이 1bp 감소에 그쳤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연결 기준)도 지난해 1조26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전년보다 19.1% 증가한 것으로 2012년

이후 최고 실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2분기 920억원과 4분기 860억원 등 명예퇴직 비용 1780억원이 발생했지만 깜짝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역시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개선했다. 총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아 위험부담은 줄이고 가파른 대출 증가로 이자이익이 늘었다.

지난해 이자이익은 5조190억원으로 1년 전(4조7620억원)보다 2570억원(5.4%) 증가했다. 원화대출금이 2015년 18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91조3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3.3%) 불

부실도 줄었다. 뒷문잡그기를 통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이 개선되면서 대손비용이 전년 대비 13.7% (1325억원) 감소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하나금융지주는 전년보다 47.9% 증가한 당기순이익 1조3451억원의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주력 계열사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4분기 1263억원을 포함해 연간 연결 당기순이익 1조3872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실적발표를 앞둔 KB금융지주 역시 은행계열사의 수익 방어로 5년 만에 순이익 2조원 대에 재진입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줄어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지난해에는 부동산시장의 호황으로 주택대출이 10% 이상

동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그랜저 신기술 체험 3박 4일 렌탈 이벤트

응모 3월 1일까지... 400명에게 무상 체험 기회 제공

현대자동차(주)가 신형 그랜저에 최초로 적용된 지능형 안전기술 현대 스마트 센스(Hyundai Smart Sense)를 더 많은 고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랜저 신기술 체험 3박 4일 렌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는 각 차수별 신형 그랜저 100대를 운영, 4개 차수에 걸쳐 총 400명의 고객에게 신형 그랜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시승에는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적용된 풀옵션 기종인 2.4/3.0, 디젤 2.2 모델이 제공돼 모든 차량에서 첨단 안전 사양의 체험이 가능하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com) 이벤트 페이지에서 3월 1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당첨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스마트폰 고도화 '일등공신'

메모리 시장 호황으로 반도체 시장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가운데 스마트폰의 고도화 '일등공신'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도체 시장 호황에는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 커넥티드카, IoT(사물인터넷) 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 스마트폰의 발전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9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발표한 전 세계 스마트폰 부품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평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용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분기 기준 14.7GB(기가바이트)였던 평균 메모리 용량은 2016년 3분기에는 32.7GB로 123%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표주자인 애플의 평균 메모리 용량은 지난해 3분기에 66GB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평균 메모리 용량은 27GB로, 전년 대비 5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는 중국, 1,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오포, 비보의 평균 메모리 용량은 35GB 이상으로, 안드로이드 평균인 27GB보다 30% 높았다.

강경수 카운터포인트의 애널리스트는 "듀얼 카메라, 4K 동영상, OS 버전 업그레이드 등의 스마트폰 고도화로 인해 스마트폰 메모리 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포함하고 그 부분에서 3D 낸드 메모리의 이동은 2017년 본격적으로 발생해, 올해 상반기에는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뉴시스

의 평균 메모리 용량은 지난해 3분기에 66GB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평균 메모리 용량은 27GB로, 전년 대비 5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는 중국, 1,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오포, 비보의 평균 메모리 용량은 35GB 이상으로, 안드로이드 평균인 27GB보다 30% 높았다.

강경수 카운터포인트의 애널리스트는 "듀얼 카메라, 4K 동영상, OS 버전 업그레이드 등의 스마트폰 고도화로 인해 스마트폰 메모리 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포함하고 그 부분에서 3D 낸드 메모리의 이동은 2017년 본격적으로 발생해, 올해 상반기에는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뉴시스

"지진 위험지역에 정책성 보험 도입해야"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지진 전용보험 개발과 함께 지진 위험지역에 대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지진 전용 상품도 없고 가입률도 낮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상청이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우리나라에 규모 5.0 이상의 지

진은 9번 일어났다. 지난해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도 발생했다.

하지만 내진설계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시설물 중 93.2%에는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다.

지진특화 보험도 없다. 재물보험 중 지진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보험 가입률 2015년 기준 0.6~5.9%로 저조하다. /뉴시스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